

우리 프린스톤한국학교는 한국계 이민 2세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1996년에 교포들에 의하여 세워진 비영리 교육 기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국어 및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하여 한국어를 말할 줄 알게 되고 동화책도 읽으며 일기도 편지도 쓸 줄 압니다. 한국 역사를 배우면서 오늘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봄학기에는 민속 잔치가 있어 설날에 어른들께 세배 드리고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놀이, 딱지 만들어 치기 같은 전통 민속 놀이를 하고 그리고는 가족들과 모두 함께 떡국을 들며 기쁨을 나눕니다. 가을 학기에는 추석에 송편을 빚습니다. 그리고 글짓기 대회와 말하기 대회도 있으며 붓글씨와 사군자, 그리고 춤과 노래를 배우며 부채와 탈과 거북선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의 상징적 교육 목표는 뿌리와 날개입니다. 이런 교과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뿌리를 찾게 되고 차츰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긍지를 가지고 튼튼한 날개로 푸른 창공을 높이 날며 또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반듯한 한국계 미국 시민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프린스톤한국학교 교장

이중숙